화재로 집 잃은 주민 ‘사랑의 집’ 후원해

마이산 탑사 · 쌍봉사 함께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와 쌍봉사(주지 보경)가 불의의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을 위해 4월 21일 ‘사랑의 집 2호’ 입주식을 진안군 청천면 현장서 열고, 새 보금자리에서 희망찬 삶을 다시 시작하길 기원했다.〈사진〉

이번에 입주식을 한 ‘사랑의 집 2호’는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전주연탄은행, 마이산 탑사, 쌍봉사 등의 후원을 받아 지은 것으로 10평 규모의 조립식 주택이며, 방과 수세식 화장실,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됐다.

사랑의 집 2호는 정천면 이모 씨(52) 소유 건물이 지난해 9월 화목보일러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로 전소된 자리에 지어졌다. 그동안 이 씨는 친척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의 집에 입주한 이 씨는 “정말 좋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호남 곳곳 물들인 부처님 자비광명

광주 비롯해 전주, 익산 등 봉축행사 잇달아

광주 1만 행렬등 거리 메워
전주 청년신용회복기금 기탁
익산 청소년에 장학금 전달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리는 봉축행사가 광주를 비롯한 호남지역 곳곳에서 잇달아 열렸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4월 29일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빛고을관등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탄생을 찬탄했다.

회장 연광 스님을 비롯해 대흥사 주지 월우 스님, 지역구 국회의원, 각 구청장 등 5000여 명이 참여한 행사는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관등법회, 연등행진, 대동한마당이 차례로 펼쳐져 참가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올해 2회째 접어든 어울림마당은 총 9개 연희단이 참여해 아름다운 율동을 선보였다. 아울러 군법당 장성 무각사 불자장병 40여 명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어린이 · 청소년 연희단 등 다양한 계층의 불자들이 다수 참여해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이날 연광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이 사회가 양적 발전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고, GDP보다는 국민의 행복지수를, 경쟁력보다는 협력, 개발보다는 공존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우 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이 이 땅에 좌절하고 고통 받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 기쁨을 줄 수 있는 날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등행진을 위한 채화의식과 점등선언으로 1만개의 행렬등이 일제히 불을 밝혔다. 1만 연등은 문화전당에서 출발해 광주 동구지역 충장로, 금남로를 돌았으며, 사찰과 단체에서 만든 장엄등 40여개가 더해져 역대 가장 화려한 행렬을 이뤄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같은 날 **전북봉축위원회**는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연등축제를 거행했다. 행사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 등 전북지역 사찰 주지스님들과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 5.18민주광장서 거행된 빛고을 관등회. 봉축탑과 무대 사이 수천여 명의 불자들이 운집해 부처님의 탄생을 기렸다.

월주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의 인간존중 선언을 자각하고 대립과 갈등, 분열과 반목 대신 용서와 배려, 화합과 통합으로 나라가 안정되도록 다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이 자리서 전북봉축위원장 성우 스님은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청년신용회복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봉축위와 금산사가 각각 1000만원씩 모연한 것으로 전주시민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법회를 마친 사부대중은 35사단 군악대를 선두로 화려한 장엄등을 앞세우고 전주시내를 행진하며 세계평화와 민족화합, 지역발전을 기원했다. 또한 법요식이 열린 전주시청 노송광장에는 목탁체험, 다도체험, 연꽃 만들기 등 체험행사가 열렸으며 어린이 큰잔치에서 입상한 청소년들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다.

익산사암연합회(회장 일행)도 4월 30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관음사 덕림스님, 영국사 묘주 스님을 비롯한 익산지역 각 사암 주지스님들과 이춘석 국회의원, 정헌용 익산시장, 불자 800여 명이 동참한 연등축제는 운전불자회 차량과 각종 장엄등을 앞장세우고 익산시 영등동 일원에서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시민들에게 전했다.

연등축제에 앞서 봉행된 법요식에서 영산작법보존회 스님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작법 시연이 펼쳐졌다. 또 익산 천천마한클럽(이사장 혜산)은 지역 청소년 15명에게 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남원과 군산, 김제에서도 연등축제가 봉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여수 청암사 지암 스님 교도소에 토마토 후원

전국 교도소와 소년원을 방문, 재소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청암봉사협의회(회장 지암, 여수 청암사 주지)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정읍교도소에 토마토를 후원했다.〈사진〉

지암 스님을 비롯해 청암봉사회 광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화 불자 등은 5월 1일 정읍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의 간식으로 사용해 달라며 토마토 550개를 전달했다.

지암 스님은 “평소 전국의 많은 교도소를 방문해 왔지만 정읍 교도소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에 간식을 준비해 방문하게 됐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재소자들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숨겨둔 내 끼, 절에서 발산한다”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 ‘동백연’ 선운사서 열려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잔치인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이 선운사에서 열렸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와 고창문화원(원장 송영래)는 4월 28일 선운사 경내서 전북지역 청소년들에게 효행심과 애향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예비 예술인 발굴을 위한 ‘제41회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유치부 어린이부터 중 ·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과 학부모 1000여 명이 문화예술 · 민속경연과 체험부문 등에 참가했다.

선운사 동백나무 숲 앞에서의 동백제례를 시작으로 막을 연 이날 경연은 ‘선운사’ ‘새싹’ ‘친구’ ‘연등’ ‘올봄’ ‘가족’이라는 시제가 주어진 가운데 백일장 대회가 열렸다. 또 선운사 경내 곳곳에서 미술, 만담설화, 타악 경연, 무용, 판소리, 시조경창 등 문화예술부문과 제기차기, 투호, 긴줄넘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학부모 윷놀이 등의 민속부문, 탁본, 향토문화알기, 도예(자기 만들기), 전통매듭 만들기, 호패 만들기, 가훈쓰기 등의 체험행사가 다채롭게 진행됐다.



고창 선운사와 고창문화원은 4월 28일 선운사 경내서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 ‘동백연’을 개최했다.

개막식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신록의 계절에 많은 학생들이 선운사를 찾아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선운사는 고창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산실 역할을 해온 만큼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연대회 각 부문별 수상자는 5월 16일 고창문화원 홈페이지와 각 학교를 통해 발표되며, 시상은 5월 30일 고창문화원에서 열린다.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는 조선 성종14년 행호선사가 조성한 선운사 동백꽃의 역사성을 배경으로 창설됐으며,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청소년 향토문화예술제로 발전돼오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장병들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임실 제6탄약창 연등축제 및 위문법회

사회뿐만 아니라 군법당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행사가 열렸다.

전북 임실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지도법사 이성강)는 4월 27일 대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및 장병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완주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 전북불교회관 바라밀 합창단, 전북불교회관 불자, 부대 장병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연등축제는 장병들의 중대별 장기자랑, 부모님께 편지쓰기 입상자 시상, 봉축 법요식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여성 4인조 인기 댄스그룹 ‘소울 퀸’이 활기찬 공연을 펼쳐 참석한 장병들을 환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장기자랑에서 입상한 장병들에게는 부대장 표창과 함께 휴가증이 주어졌다. 전북불교회관 바라밀 합창단은 군장병들을 위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찬불가 공연을 펼쳤다.

이어진 법요식에서 도영 스님은 “누구보다 장병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장병 여러분들이 군 생활하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른다면 보다 행복한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라밀합창단이 부처님을 기리는 찬불가 음성공양을 올리는 모습.

이성강 포교사는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이면 장병들을 위해 봉축 위문법회를 봉행해왔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대의 안녕과 장병들의 앞날에 무한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봉축위원회는 전 부대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참석한 장병들에게는 떡과 과일, 햄버거 등 푸짐한 간식이 제공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벌써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검증해보세요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을 입력하셔서 무료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DVD 동영상 1 • 2부를 시청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를 신청하세요
- 교육기간 :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외 제자 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음택) 포함 (90일 완성)
-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괘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파계로 112길 30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0-9217-2237

▶ 강의 및 감정요일 ◀
대구 : 월, 화, 수
(오전 10시 부터 ~ 오후 3시까지 방문요망)